

제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3. 2. 15.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2월 15일 14:00 ~ 14:39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 원 장

권 대 영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이 복 현 위 원

유 재 훈 위 원

이 승 현 위 원

김 용 진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3년도 제2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2023년도 제3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 2023년도 제2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2023년도 제3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22호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상정하여 한국공인 회계사회 감사기준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소규모 기업에 대한 감사품질은 유지하되 외부감사 부담은 낮추기 위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3호 『한화손해보험(주)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화손해보험(주)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4호 『DB손해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등을 위반한 DB손해보험(주)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호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유지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유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호 『대한토지신탁(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한토지신탁(주)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주주와 공사계약 체결시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보고자) 2016년도 준법감시인 간담회 후 책임준공확약이 관
리형 토지신탁의 일반적인 사업구조로 정착되어 있는 상황
임. 이번에 제재하는 것은 책임준공확약 자체가 아니고 대
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법규위반이라는 점임. 다만, 지금 PF대출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고 책임준공확약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도 필요한 부분이 있음.
- (위원) 책임준공확약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서 토지신탁에
서 이행을 해야될 업무가 본원적으로 있다고도 볼 수 있고,
7~8년간 이 업무를 해 왔음. 다만 이번 PF사태를 보면서 부
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 관련 규율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겠음.
- (위원) 정책적 방향과 함께 형성되어 있는 생태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하는 법규적, 산업적 측면도 같이 봐야함. 다
만, 이 건은 대주주 공여위반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를 좁혀
서 볼 것임.
- (위원) PF대출 관련된 제도는 근본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번 검토하시고 다시 기회가 되면 금융위에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호 『NH투자증권(주) 및 신한투자증권(주)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펀드신속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각 49인 이하에게 청약권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공모규제를 회피한 발행인과 주선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모 49인 이하로 쪼개기를 하는데 이번 사안이 그에 해당됨. 기존에 자본시장법이 제정 당시부터 공모와 사모의 개념이 있었고 사모의 형태지만 전매가능성에 의해서 공모로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50인 산정이 문제가 됐었음.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부터 파생결합증권을 사실상 동일한 증권으로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편입되는 기초자산이 무엇이나, 그 편입되는 기초자산이 동일할 경우에는 동일한 증권으로 봤던 것 같음. 이 사안이 사실은 쪼개기에 의해서 49인 이하로 판매된 상품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49인으로 쪼개기 하는 것만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의성이 명백한 사안이 없다는 생각을 했음. 그런데 증선 위에서는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음.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부터 업계에서 파생
결합증권에 대해서 동일한 증권으로 어떻게 간주(count)하
는 지는 이미 정립되어 있었고, 2018년도 □□□□ 사건 이
후에 공모를 회피하기 위한 사모 쪼개기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을 제정했기 때문에 2018년 5월 시점 이후에 쪼개기에
대한 것은 고의로 판단함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음.

- (위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호 안건과 관련하
여, NH투자증권(주) 및 신한투자증권(주)에 대한 과징금을 다
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습니다. 동 건 조치대상자들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22.12.14.)는 당시 공
모규제 및 제재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들의 행위를 '중과실'로 판단하였
으나,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23.2.9.)는 2018년 5월1일에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증권의 분할 발행을 방지하
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법령이 시행됨을 충분히 인지하
였으므로 '고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음.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주) 및 신한투자증권(주)에 대한 과징금 부
과금액을 6억 6,910만 원으로 상향하여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7호 『2023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23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보고하는 내용

- (위원) 금감원과 예보가 MOU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공동검사하는 기관이 있음. 그것이 한 10개사 정도 되는데 저희 요청에 의해 협의가 되어서 7개 회사에 대해서 공동검사는 것으로 되었음. 결정된 이 7개 회사의 검사계획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추가로 금융감독원은 수시검사 대상으로, 저희가 보기에 재무상태 점검이 필요한 회사가 4개 회사가 있는데 향후 수시검사하면서 고려를 해 주셔서 공동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음. 끝으로 저희는 2015년부터 논의되었던 대로 금감원 검사와 예보 검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예보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고 위험 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 검사기법을 조금 더 개발하고 있음. 그래서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음.
- (위원)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사실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예보가 요청하시는 것은 자기권한에 대한 영역침해라고 보기 보다는 합리적이면 수용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수감기관 입장에서 볼 때 예보가 좀 차별화되고 따로 보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음.

- (위원) 보다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금융시장 상황상 건전성과 유동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기·수시검사 등을 통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점검해 왔고 최소한 올해 상반기 내지는 3/4분기까지는 그것이 주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금감원의 감독행정 혁신 내지는 개선과 관련되어서는 그전에 과태료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의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저희가 다소 관행적으로 좀 지엽적이고 적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분에 너무 천착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내부에 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여러 가지 내부통제 실패라든가 이런 제도적 이슈들이 꼭 위규에 따른 제재까지는 이어지지 않더라도 일종의 컨설팅 내지는 서비스제공 측면에서 저희가 유사한 업권을 볼 때 조금 더 고도화되어 있는 다른 시스템들을 해당 수감기관에 권유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 내지는 해당 업권의 내부통제라든가, 개별적인 운영업무처리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음. 그리고 기관장인 금감원장 입장에서는 제재 건이 적다고 해서 그것들을 너무 질책하지 않고 조금 더 서비스적 관점에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의 정책적 목표라는 말씀을 일단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예보와 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이기는 한데 저희가 제도로써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뜻을 같이 하는, 금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보면 예보가 하는 것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저축은행 등에서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저희가 MOU상의 내용도 큰 뼈

대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똑같은 10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실상황이나 시장 상황에 맞게 잘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강하게 느껴서 저희 검사팀에도 얘기를 했음. 예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채근을 하고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음. 또 마찬가지로 한국은행과 여러 가지 공동작업들을 최근에 많이 논의 중인데 그중의 일부로, 검사를 할 때 검사를 받는 해당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똑같은 내용들을 이중으로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새로 도입할 금융안정계정의 운영과 관련된 그러한 점검측면에서의 접근을 하는 것은 함께 연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의 적정성의 운영에 필요한 업계의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음.

- (위원) 사실 저희도 공동검사를 한은법상 같이 하는데 저희는 부문검사, 개별은행검사 3회 정도씩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음.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목적이 명확히 있음. 통화정책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건전성 중심으로 거시적인 측면을 보고 있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작년에 PF대출, 가계대출, 주택부분이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 봐야 될 부분이 꽤 있음. 저희는 개별은행을 검사하는 차원과는 다르게 그쪽에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시장에 미치는 리스크 그다음에 그것이 소비나 투자나, 전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주로 보고 은행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 정도를 하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 어쨌든 다 중요한 기관이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이고 시장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서 잘 해 주시면 좋겠음. 또 금감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는 것이,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이지만 감사의 포인트가 절차상의 운용리스크 쪽으로 인력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오히려 중요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 아니냐는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도 제가 듣고는 있는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얘기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도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지도 필요하면, 한국은행이 협업해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

- (위원) 같이 하도록 하겠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전 제8호『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제3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39분 폐회)